

독일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 : 발전과정과 연구동향

안영진*

요약: 독일에서 여가와 관광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여가 및 관광지리학이 인문지리학 내에서 하나의 독립된 분과로서 형성된 것은 196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비교적 일천한 연구 분야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일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은 여가와 관광의 사회적 중요성이 꾸준히 높아짐에 따라 연구 초점의 변화와 함께 그 위상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왔다. 여가 및 관광지리학의 첫 번째 발전단계는 192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친 시기로, '관광(교통)지리학'이 형성되었다. 뒤이어 1970년대에는 원형학파의 여가행동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접근이 확산되면서 여가 및 관광지리학은 사회과학적 지향의 '여가지리학'이라는 새로운 단계로의 변화를 겪었다. 이후 '관광지리학'이 서서히 부상하고, 결국 여가지리학과의 통합을 거쳐 체계론적·다원론적 성격을 띤 '여가 및 관광지리학'이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주요어: 독일, 인문지리학, 여가 및 관광지리학, 발전단계, 연구동향

1. 서론

후기 산업 및 서비스사회의 도래와 함께 개인과 사회생활에서 노동이 지닌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오늘날 인간의 시간수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은 주로 餘暇와 觀光¹⁾활동으로 매워지고 있다. 따라서 여가와 관광은 현대 사회의 특징적 현상의 하나로 굳건히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가와 관광은 사회의 발달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근대 농업사회에서는 규칙적이고 의식적인 여가의 향유나 관광활동은 특정 사회계층과 인구 집단에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전문화와 분업화가 확대되고 육체적·정신적 노동 강도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먼저 여가와 관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뒤이

어 생산성의 향상과 함께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면서 이러한 요구는 마침내 현실화되었다.²⁾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서는 농업사회와 달리 집약적으로 요구되는 노동력이 휴식과 긴장완화, 휴양 등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재생산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여가와 관광에 대한 수요는 인구가 집중된 도시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박영한·안영진, 1998).

이처럼 산업사회가 본격화되면서 과거 휴양으로 일컬어졌던 현상은 대량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요구이자 인간의 존재표현으로 부각되었다. 즉, 독일 뮌헨의 '社會地理學派'는 여가와 관광을 현대 사회의 '存在基本機能'(Daseinsgrundfunktion)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오늘날의 (후기) 산업 및 서비스사회에서 여가와 관광의 기능은 거주나 노동, 교육, 공동생활 등의 기능들과 동등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한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조교수

층 제고되고 있다. 여가와 관광에 대한 수요가 뚜렷해지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활공간은 거주지와 생산지 등으로서 이제까지 수행해 온 역할 이외에 여가 및 관광활동의 수요까지 충족시켜야만 하게 되었다. 또한 여가 및 관광활동의 확대는 여타 산업 활동을 유인하는 입지효과를 발휘하며, 여가와 관광은 하나의 국가 및 지역산업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독일에서 이러한 여가와 관광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다. 20세기 초반부터 협의의 관광지리학적 연구가 행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가 및 관광지리학이 인문지리학 내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하나의 독자적 성격의 분과 학문으로 체계화된 것은 196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비교적 일천한 연구 분야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일에서 여가 및 관광지리학은 여가와 관광이 지닌 사회적 의미 변화에 발맞춰 연구 중점의 지속적인 변화와 아울러 그 위상을 꾸준히 제고시켜 왔다.

이 글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영미 등의 관광지리학 연구동향과 발전에 관한 다각적인 소개와 비판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독일어권, 특히 독일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대단히 부족하고 빈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김상빈, 2005a; 2005b).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독일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그 연구동향을 개관하는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독일에서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의 발전단계에 주목하고, 그 주된 연구내용과 관점의 변화를 검토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이 논제와 관련하여 여기서 먼저 지적해 둘 점은 학문 분야의 발전단계에 따른 학술적 연구내용은 기존의 접근방법이나 연구전통을 완전히 배제한 채 전혀 새롭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학문의 발전과정은 계기적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부분적으로 과거의 연구 성과가 다른 관점에서 재조명받거나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수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2. 본론

독일에서는 알렉산더 폰 훔볼트(A. von Humboldt)의 유럽과 남아메리카 등지에 관한 학술적 성격의 수많은 여행보고서가 여가 혹은 관광이라는 주제를 다룬 최초의 지리학적 논설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독일을 포함한 서유럽의 경우 여가와 관광이라는 현상은 훔볼트가 활동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걸친 시대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자명하며, 따라서 그 연원은 멀리 고대로까지 소급되기도 한다(Job et. al., 2005). 이를테면 기원전 770년경의 올림피아드로 유추할 수 있는 고대의 스포츠관광, 헤로도토스가 지적한 오늘날의 수학여행과 비견되는 교육 목적의 관광, 로마인들의 온천여행에서 알 수 있는 치료관광, 델피(Delphi)나 예루살렘 등지를 찾는 성지관광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중세에 들어와서는 주지하다시피 순례여행이 크게 융성하였다. 뒤이은 근세에는 귀족층이나 식자들을 중심으로 기분전환이나 현대의 평생교육에 비유되는 계속교육 목적의 여행이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중부 산악지대의 요양지들이 관광 목적지로서 각광 받았다. 이러한 새로운 양상은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었지만, 점차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결과적으로 호수나 하천, 해안에서의 휴양이나 정신적·육체적 원기회복, 그리고 또한 알프스산지를 오르거나 스키를 타는 등 스포츠 목적의 관광활동이 중요하게 부상하였다. 이후 국내외로 점차 폭넓은 대중이 참여하는 관광(Massentourismus)이 성행하는 동시에 여가의 총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보다 많은 인구집단과 계층이 그 혜택을 받았다(Prahl, 2002: 85-120). 19세기에 걸친 여가와 여행의 확대로 일차적으로 휴양지나 관광지의 경관을 기술하는, 따라서 당시의 관광활동을 언급한 여행 보고서들이 빈번히 출간되기 시작했다(Job et. al., 2005: 585-6).

독일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적 연구는 인접한 전통

적인 관광국가인 오스트리아나 스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천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나, 지난 한 세기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독일에서 여가 및 관광지리학 연구의 첫 번째 발전단계는 논자에 따라 그 평가가 다소 엇갈리긴 하지만 대체로 192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친 시기로 파악된다. 이 시기에 이른바 ‘觀光(交通)地理學’(Fremdenverkehrsgeographie)이 분야를 지칭하는 핵심 용어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뒤이어 1960년대 중반에 시작하여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뮌헨학파의 ‘여가행동(Freizeitverhalten)’의 지리학이라는 사회지리학적 접근이 널리 수용되고, 따라서 독일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은 이른바 ‘餘暇地理學’(Geographie der Freizeit)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는 중대한 변모를 겪었다. 그리고 이후 부분적으로 다소 시차는 존재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서 여가지리학과 병행하여 그리고 또한 서로 밀접한 상호작용 하에 이른바 ‘觀光地理學’(Tourismusgeographie)이 서서히 부상하고, 결국 1990년대 이후 여가지리학과 통합을 거쳐 오늘날의 ‘餘暇 및 觀光地理學’(Geographie der Freizeit und des Tourismus)³⁾으로 발전하게 되었다(Wolf et al., 1986: 10-30; Becker, 2002; Jurczek, 2003; Kreisel, 2004).⁴⁾

1) ‘관광(교통)지리학’의 태동과 독립분과로서의 형성

오랜 전통을 지닌 독일 지리학의 발달과정에 비추어 볼 때, 여가 및 관광과 관련된 연구 주제가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협의의 관광(교통)지리학적 접근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관광(교통)지리학이 그 모태 학문인 인문지리학 내에서 독자성을 지닌 하나의 학문분과로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이후였다. 그 동안 관광지리학은 연구내용과 방법론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

동과 이에 따른 관광이 지닌 중요성의 제고에 다각적으로 대응해야만 했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콜(Kohl, 1841)의 연구가 관광(교통)지리학적 연구와 유관한 가장 오래된 분석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관광을 사회적 교통 내지 통행의 한 표현으로서 파악하는 동시에 각종 위락지구나 온천지를 형성케 하는 일종의 유발자로서 설명하였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 들어와서 예로부터 독일인들의 오랜 여행 목적지였던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 등지에 대해 주로 문예적이고 심미적 내용을 담은 관광 안내서나 지역 소개서들이 처음으로 출간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저술들의 주된 관심사도 여행 목적지나 특정 지역과 국가의 역사나 풍광이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기술과 설명에 맞춰졌다.

20세기 초반에 들어서서 관광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지리학적 연구가 나오는데, 그것은 브로우기어(Brougier, 1902)가 남부 독일 바이에른의 관광활동과 그 경제적 의의에 관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슈트라트너(Stradner, 1905)는 관광(교통)지리학⁵⁾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지리학적 학술 용어로 사용하였다. 그는 과거와 달리 관광의 중요성과 그 의미 제고를 주로 도시로의 인구집중, 즉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휴양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그는 별장지대나 피서지 등 새로운 관광지가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온천지역도 과거와 전혀 다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장거리 여행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처럼 관광의 중요성이 지리학적 측면에서 오랫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세기에 들어서서 새로운 관심을 끌면서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이 마침내 시도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연구는 대부분 기술적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경관과 결부된 일련의 통계자료를 단순히 분석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관광과 공간 간의 상호작용 또는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자로서는

슈푸츠(Sputz, 1919)가 거론될 수 있다. 관광(교통) 지리학 연구와 결부된 그의 주된 학문적 관심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한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서서 확대일로에 있는 관광객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었다. 그는 한편으로 외지인 자체를 경관의 일부로 보고, 다른 한편으로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의 변화, 즉 부분적으로 경관 형태의 변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1920년대 말 설치된 베를린 상업전문대학(Handelshochschule Berlin) 관광 연구 학과 (Forschungsinstitut fuer Fremdenverkehr)에서 활동한 지리학자인 그룬탈(Gruenthal, 1934)은 관광(교통)지리학의 과제가 관광활동의 공간적 분포패턴을 파악하고 관광과 지표면의 자연현상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Wolf et al., 1986: 23-24).

그렇지만 수많은 후속 연구를 자극하는 등 전후 여가 및 관광지리학 연구에 이정표가 되었다는 점에서 관광(교통)지리학의 발달에 보다 귀중한 공헌을 한 것은 포저(Poser, 1939)였다. 독일의 산지관광⁶⁾에 대한 그의 연구는 관광활동의 구성과 발달, 그리고 입지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의 일차적 관심사는 관광의 본질과 이러한 맥락에서 지리학의 특별한 역할에 있었다. 그는 특히 관광지역을 농업지역이나 공업지역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공간단위 내지 문화경관의 한 유형으로 설정할 정도로 경관을 관광(교통)지리학의 중심 주제로 삼고 토지이용과 관련한 관광활동의 특성과 그 경관 형성적 작용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1960년대에 자몰레비츠(Samolewitz, 1960)가 지적하듯이, 포저는 통계적 탐색을 강조하고 관광의 유형을 계통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관광의 공간적 영향에 주목함으로써 종전의 순수 기술적 연구와 구별되는 연구 성과를 남겼다. 더군다나 그는 학술적 분석의 초점을 관광 그 자체에서 그것이 실제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다시 말해 공간 내지 지역(경관)으로 바꾸고, 오늘날의 고립적·추상적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능적·구조적 요소를 문화경관의 발달에 접목시킨 복

합적 공간 분석을 시도한 총체적 접근을 추구하였다(Kreisel, 2004: 166). 그러나 여행자의 성격이나 행태, 출발지 등은 고찰의 대상에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곧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지리학의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관광(교통)지리학도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다. 반면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는 관광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의 관광지리학의 후퇴 혹은 정체는 이들 독일어권 내에서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었다. 특히 이들 두 나라에서 관광연구는 산업적·경제적 관점에서 활발히 이뤄졌으며, 이는 다소 관점의 차이도 보여주지만 나중에 독일의 관광지리학 연구에 적잖은 자극을 주었다. 당시에 이들 국가에서 설립된 수많은 관광 관련 연구기관들⁷⁾은 오늘날까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또한 관광에 대한 학술적 작업도 다채롭게 진행되어 왔다.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쳐 독일의 여가 및 관광 지리학은 주로 관광(교통)지리학적 사례연구를 특징으로 하였다. 이들 특정 관광지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모노그래프(Monographie) 형태로 출간되었다. 따라서 당시 독일 인문지리학 분야의 일반적인 연구 경향과 마찬가지로 특수 연구를 뛰어 넘어 이론적 설명을 포함한 법칙 정립적인 접근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⁸⁾ 이 시기에 나온 중요한 연구의 하나로서는 한(Hahn, 1958)이 편찬한 “독일의 휴양지역”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독일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지도화 작업을 행하고 종합적인 설명을 행한 것으로서, 당시의 주요 관광지 내지 휴양지의 개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개별 관광지에 대한 연구들은 관광의 전개방식, 즉 관광형태와 그 공간적 작용결과인 취락 유형을 중심으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능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관광지 발달의 기본 원리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자 중 한 사람이 크리스탈러(Christaller, 1955)였다. 그는 자신의 중심지이론을 관광의 공간적 체계를 분석하

는데 원용하였다. 그의 기본 가설은 도시 및 산업 집적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관광지로의 발전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른바 ‘주변부 가설’ (Peripherie-Hypothese)은 중심부의 출발지와 주변부의 관광(목적)지 간의 분화에 결정적인 중심 및 주변의 관계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후에 이와 관련된 연구는 선진 산업국들의 관광 목적지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의 관광지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즉, 국제적 관광 흐름은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거리와 그 규모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하여튼 이 시기에 제3세계로의 관광 활동의 확대와 장거리 해외여행에 대한 학술적 논의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1960년대에는 여가 및 관광지리학의 응용적 측면에 대한 연구(Klopper, 1955)도 나타났다. 독일에서 공간정비계획(Raumordnung)으로 불리는 국토정책이 체계화되면서 관광 휴양지의 개발은 공간정책과 지역 및 국토개발의 과제로 부상하였다. 지리학적 관광계획이 중요한 측면으로 인식되고, 종래의 연구 주제였던 관광 목적지만이 아니라 출발지의 문제도 다뤄지게 되었다(Wolf et al., 1986: 25-27).

2) ‘여가행동의 지리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1960년대 중반 독일에서는 그 이전까지 지배적이었던 관광(교통)지리학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여가행동의 지리학’이 등장하였다(Ruppert et al., 1970; Ruppert, 1975). 과거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이 공간적 측면에 지나치게 강조하였다면, 여가행동의 지리학은 보다 포괄적인 여가활동의 일부로서 관광과 그 공간적 전개에 주목한 것이다. 이 접근방법은 1960년대에 독일의 지지 위주의 전통 지리학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문적 흐름의 하나로 형성된 사회지리학의 민헨학파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민헨학파는 전후 산업사회에서 인간이 생존하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전개하는 수많은 공간 활동 중 특정 사회계층에 한정되지 않으며 (대량)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공간패턴의 형성과 그 변화에 유의미한 인간의 존재표현을 존재기본기능이라고 일컫고, ‘휴양(Sich erholen)을 이리한 기본기능의 하나로 설정하였다(안영진, 2003: 163-8). 이에 마이어 등은 여가를 휴양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확대시킨 개념으로 파악하고⁹⁾, 인간의 행위 공간적 활동을 고찰의 중심으로 삼았다(Jurczek, 2002a).

주지하다시피 민헨학파는 전후 복구가 끝나가고 1950년대 이래 유래 없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다변화되어 가는 여가행동의 공간적 영향 혹은 그 작용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도시에서는 근교 휴양통행과 장기 휴가여행에의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거주지나 취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그 결정 요인의 하나로 자리 잡은 여가의 중요성을 주목하였다. 그래서 민헨학파는 관광이 대중적 현상으로서 발달과 아울러 새로운 여가활동의 등장에 따라 당시까지 통용되었던 관광이라는 용어가 여가의 다양한 행동방식 중 일부분만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용어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여행이라는 개념도 근교 휴양의 문제나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 시설들을 모두 포함시켜 설명하고 분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즉, 근교 여가활동의 공간적 영향이 확대되고 도시에서 여가와 관련된 각종 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더욱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공간적으로 중첩됨에 따라 관광을 사회 공간적 관련성으로부터 고립시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을 여가활동이라는 전체 영역 속에 포함시키고 여가행동을 존재기본기능의 하나로 파악함으로써 여가행동을 다른 기능들과 나란히 공간의 조직 형태와 그 변동을 가져오는 하나의 과정으로 상정하고 공간을 조절하는 중요한 계기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민헨학파는 공간질서의 관점에서 다양한 여가활동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패턴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선 여가행동의 방식을 예를 들어 소득, 사회구조, 도시화, 거주지로부터의 거리,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여가 목적지의 시설 여건, 유행 등의 요인에 의거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여가활동은 기본적으로 거주지와 휴양지 간의 거리와 결부되며, 이 거리는 여가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몇 시간의 단기적, 반나절 또는 하루 그리고 주말의 중기적, 몇 주에 걸친 장기적 시간)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가활동의 행위 공간 또는 공간적으로 단계화된 용량 및 도달범위의 체계는 거주지 주변에서의 여가행동, 근교 휴양공간에서의 여가행동, 관광지에서의 여가행동 등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Jurczek, 2002a).

이에 따라 여가행동의 지리학은 먼저 거주지 주변의 일상적인 여가활동에 주목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주지 주변은 도시의 지구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인간 활동의 거점인 주택으로부터 시간적으로 15분의 범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된 여가활동의 주요 시설물로서는 놀이터와 주차장, 도시공원, 그리고 동·식물원 등을 들고, 특히 이들 시설물을 중심으로 한 여가활동은 방문자의 사회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 관점에서도 서로 구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근교 휴양공간에서의 여가활동은 시간적으로 주말의 휴양활동까지를 말한다. 특정 도시의 근교 휴양공간의 범위는 휴양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교통 기술상 연계시킬 수 있는 기존의 또는 대안적으로 선택 가능한 근교 휴양(목적)지, 그리고 계절에 따라 가변적인 사회집단의 선호 등에 의해 규정된다고 한다. 루퍼트 등은 뮌헨을 사례로 근교 휴양활동의 공간변화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Ruppert et al., 1970). 무엇보다도 대도시 주민들의 근교 휴양활동은 시가지의 확장과 교통수단 및 교통로의 발달에 따라 달라지며, 그 공간적 도달범위가 꾸준히 확장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교 휴양활동의 목적지가 지역적으로 분산되고, 특히 특정 사회집단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지적한다. 마지막 장기여행의 목적지에 해당하는 관광지에서의 여가활동은 관광지로서의 적합성과 자연 및 인문지리학적 특성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사회집단의 관

광행태가 관광지의 형성과 그 개편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에 연계하여 과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관광지가 어떤 요인에 의해 특징적으로 부각되는지를 해명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박영한·안영진, 1998).

결국 1970년대 여가와 관광과 관련한 인간행위의 패턴에 관한 지리학은 문화경관과의 연계를 강조한 포저(Poser)류의 전통적인 관광(교통)지리학을 서서히 대체하였다. 자세한 사례 연구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지리학적 집단의 관광행태와 그 도달범위에 모아졌다. 이와 관련한 독특한 관심사의 하나는 예를 들어 ‘행위 공간적 접근’이었다(Heinritz et al., 1978). 이후 독일 지리학계에서는 여가, 관광, 근교 휴양활동에 대한 접근방법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으로 전통적인 관광(교통)지리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재고찰(Knirsch, 1976)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 여가행동의 지리학이 관광행태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Newig, 1975; Uthoff, 1988), 뮌헨학파가 말하는 여가의 개념이 공간과 일방적으로만 연계되고 전체 사회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대두하였다(Oestreich, 1977). 물론 사회집단을 고찰의 중심에 놓고 근교 휴양활동과 거주지 주변의 여가활동을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격상시킨 뮌헨학파의 여가행동의 지리학은 다소 시간적으로 지체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 볼프 등(Wolf et al., 1986)이 내놓은 “여가 및 관광지리학”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되었다. 즉, 교재 형태의 이 책은 여가행동의 지리학이 지향하는 접근 방법론을 개념적으로 발전시킨 저서로 평가된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여가라는 주제를 사회과학적 맥락 속에 이론적으로 굳건히 자리 매김하고 과거보다 한층 정교한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여가 및 관광행동의 동기, 사회계층에 따른 관광활동의 유형화, 그리고 관광지에 대한 선호와 이미지 등에 관한 것이었다.

3) '여가지리학'의 전개와 '관광지리학'의 위상 제고

위의 설명을 통해 이미 단초적으로 파악할 수 있듯이, 197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은 서로 상이한 접근 방법론을 둘러싼 다원적 논의로 특징 지워진다. 1960년대 말에 학계의 공감과 아울러 일종의 시민권을 획득한 민헨학파의 '여가(행동)의 지리학'은 계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가행동의 시공간적 관련성을 복합적인 체계 속에서 설명하려는 다양한 설명 도식들이 우후죽순처럼 제시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도식들로서는 노동과 거주, 여가라는 생활영역에 관한 삼각다이어그램(Wolf, 1977), 여가 및 관광(교통)의 유형에 관한 정리도식(Monheim, 1979), 여가와 관광, 근교휴양의 이론적 관계구조(Jurczek, 1980), 그리고 존재기본기능의 공간적 조망(Kaminske, 1981)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가지리학은 전통적인 관광(교통)지리학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보완하는 성격을 견지하며 여가 및 관광지리학을 주도해 나갔다(Wolf et. al, 1986: 13-22).

더군다나 1980년대에 걸쳐 독일어권에서는 여가 및 관광지리학은 인문지리학 내의 그 어떤 분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도약을 경험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여행 빈도와 관광이 지닌 사회적 의미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에 따른 결과로서 학술적 연구에 대한 수요 증대와 결부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이른바 '여가사회'의 도래와 이와 연계된 사회문화적 변동은 여가활동과 관광기회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다(Prahl, 2002). 세계의 여타 지역과 달리 특히 서구에서는 여가 및 관광활동에 대한 거의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결부된 수요와 공급은 개성을 강

표 1. 지리학 논문집에 발표된 여가 및 관광지리학 논문 추이 (1950-1980)

단위: 편수

구분		독일의 주요 지리학 논문집*					합계
		지구	지리학	지리학평론	지리학잡지	경제지리학잡지	
여가 및 관광 이론	1950-60	-	1	-	-	1	2
	1961-70	1	-	-	-	1	2
	1971-80	-	-	8	-	8	16
관광	1950-60	1	-	3	-	1	5
	1961-70	2	1	8	-	21	32
	1971-80	1	5	7	2	22	37
근교휴양	1950-60	-	-	-	-	-	-
	1961-70	-	-	3	-	2	5
	1971-80	-	-	3	-	7	10
거주지 주변의 여가 활동	1950-60	1	-	-	-	-	1
	1961-70	-	-	-	-	-	-
	1971-80	-	-	2	-	-	2

주 : 지구(Die Erde), 지리학(Erdkunde), 지리학평론(Geographische Rundschau), 지리학잡지(Geographische Zeitschrift), 경제지리학잡지(Zeitschrift fuer Wirtschaftsgeographie)

출처 : Wolf et al.(1986: 30-31)

조하고 개별화된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화를 거듭하는 한편, 대중관광을 대상으로 한 건실한 공급 기반이 구축되었다(Job et al., 2005: 585-590). 오늘날 여가와 관광은 세계적 산업으로 역동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본의 국제적 흐름과 정보 및 노하우의 이전을 가속화하는 세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비와 욕구와 가치의 새롭고도 단기적이며 가속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Kreisel, 2004).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독일에서는 여가와 관광에 대한 일반론적 논구를 넘어서서 보다 특수한 문제나 현상을 둘러싼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면, 문화관광, 산업관광, 회의 및 전시관광, 휴양관광, 도시관광, 그리고 요양관광 등이다. 이와 더불어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연성적이고 대안적인 관광활동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특별한 가치를 얻어가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주제를 둘러싼 연구 스펙트럼의 지속적인 확대는 위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전 세계적으로 평균 이상의 여가 및 관광활동의 의미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귀결로 이해된다. 이에 따른 또 하나의 표현양상으로는 여행안내서가 대량으로 발간되기 시작한 점이다. 이러한 여행안내서는 학술적 연구와 함께 일반 대중의 다양한 경험적 지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식을 줄 모르는 출판 붐을 이어가고 있다(Jurczek, 2003: 30).

이 뿐만 아니라 이 시기 동안 독일 지리학 내에서는 여가와 관광을 중심 주제로 한 교재와 편집서가 다양하게 출간되었다. 이 또한 이 분야의 학문적 위상 제고와 함께 분석적 언술의 일반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쿠리나트와 슈타인에케(Kulinat & Steinecke, 1984)의 “여가 및 관광(교통)지리학”, 호프마이스터와 슈타인에케(Hofmeister & Steinecke, 1984)의 편집서인 “여가 및 관광(교통)지리학”, 앞서 언급한 볼프와 우르크첵(Wolf & Jurczek, 1986)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 그리고 슈토어벡(Storbeck, 1988)의 “현대 관광 - 동향과 전망”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 연구자들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학제적 분야와 다양한 연구 집단에 보다 활발히 참여하였다. 이 시기에 여가 및 관광지리학 내부에서는 이론적 원리구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 과거보다 여가와 관광의 문제를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는 인접 학문분야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인접 학문분야로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정치학, 법학, 의학, 문화인류학, 종교학, 언어학, 체육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 등이었다. 학제적 접근은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여가 및 관광활동이 과거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 학문분야를 넘어선 학제적 고찰을 통해서만 이를 보다 적절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Jurczek, 1981). 그리고 이러한 학제적 협력과정에서 독일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은 여러 측면에서 이들 인접 학문가운데서 일종의 가교 혹은 횡단적인 연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제기된 새로운 경계 분야의 논제들이 개별 학문분야 내에서 늘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이미 굳건히 자리 잡은 각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이를 실험 작업 정도로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들 논제는 하나의 새로운 연구 분야로 용인 받게 되었다. 반면에 여가 및 관광과 결부된 주제를 보다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여가 및 관광지리학은 응용적 차원을 크게 확대하고 실천적 문제에 관여함으로써 과거보다 그 가치와 성가를 더욱 더 높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가 및 관광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연구주제의 측면과 함께 연구조직과 산학협력 등과 관련해서도 인문지리학 안팎에서 수십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

4) '여가 및 관광지리학'의 확립과 발전

1990년대 초반 이래 독일의 여가 및 관광분야는 기본적으로 판매자 중심 시장에서 구매자 중심 시장으로의 구조 변화, 과거의 고도성장에 벗어난 관광산업 성장률의 전반적인 정체 내지 하락, 그리고 한층 강화된 수급 경쟁 등을 주요 특성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이라는 정치적 대변혁이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다. 관광과 관련된 공급 측면의 다양성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이와 동시에 독일 국내 관광지의 관광객 유치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더군다나 동독을 중심으로 특수한 여가 및 관광활동의 성립과 함께 여가지리학적 접근방법도 다시금 등장하였다. 지난 십수 년 간 독일에서는 평균적으로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한편¹⁰⁾, 국민들의 여가와 관련된 활동과 행동패턴은 꾸준히 변하고, 이에 따라 여가활동과 연계된 하부구조에 대한 수요 역시 적잖은 변동을 겪고 있다. 근교 휴양활동은 여타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주말과 부분적으로 매일 매일의 방과 후 여가활동에서 확고부동한 구성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더욱이 통독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의 동인이 되고 있다 (Benthien et al., 2001; 김삼빈, 2005a).

따라서 한편으로 전통적인, 하지만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는 여가지리학적 측면들이 계속적으로 연구 주제로 수용되는 동시에 일반적으로 체험소비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여가활동의 내용이 그 중요성을 얻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음악회(뮤지컬)나 멀티플렉스 영화관, 그리고 여가공원 또는 여가센터(특히 체험 또는 테마파크) 등의 방문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설의 수요자 측면과 관련해서는 놀고 즐기는 이른바 '오락 위주'의 여가활동이 계속적으로 그 의미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반면에 여가시장의 공급자 측면, 다시 말해 여가활동에 따른 지출 또는 매출 달성과 관련해서는 경영학적(투자)수익이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여러 측면에서 여가와 관련된 혁신적

인 공급체계는 점점 더 관광적 관점에서 마케팅 되고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벤트관광이나 스포츠관광 등이다(Job, 2005).

독일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은 이상과 같은 시대적 여건 변화와 보완적으로 새로운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2000년에 약 7억 명에 달한 전 세계의 여행객들이 2005년에 약 8억 8천만 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세계화와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화에 비추어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산업 차원에서도 관광의 의미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극히 다양한 척도의 공간적 차원에서 이와 결부된 중요한 연구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중반이후 오늘날까지 견지되고 있는 기능주의적 접근에 따라 여가 및 관광활동의 공간적 분포패턴을 보다 세분화시켜 정교하게 분석하는 접근방법이 강조되고, 개별 관광 유형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증시되고 있다. 결국 여가와 관광의 또 한번의 의미 제고가 지리학적 연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Jurczek, 2003: 31).

이런 맥락에서 최근 들어 여가 및 관광지리학의 주된 연구 초점은 지속 가능한 관광과 공간적 수용 능력과 같은 응용적 주제와 아울러 사회변화와 이에 따른 수급체계의 변화에 맞춰지고 있다(Jurczek, 2002b). 더군다나 여가 및 관광활동에 있어서 지리적 공간의 의미에 대한 연구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행위공간, 인지공간, 그리고 심지어 가상공간의 개념까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Kreisel, 2004).

이와 더불어 여가 및 관광지리학적 연구 결과물로서는 벡커 등(Becker, Job & Witzel, 1996)의 "관광과 지속가능한 발전", 포어라우퍼(Vorlauffer 1996)의 "개발도상국의 관광", 시스템이론에 바탕을 둔 벤틴(Benthien, 1997)의 "휴양 및 관광지리학", "독일 국가 지도 집" 총서의 하나인 "여가와 관

광”(Nationalatlas Bundesrepublik Deutschland - Freizeit und Tourismus, 2000) 편, 슈타인에게 (Steinecke, 2000)의 “체험 및 소비세계” 등이 발간되었다. 특히 국가지도집의 “여가와 관광” 편은 독일의 관광지리학적 제반 현상을 지도와 도표를 통한 공간적 차원에서 설명한 것으로서, 여가 및 관광활동의 다채로운 측면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최근에는 독일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의 연구 현황을 조망한 베커 등(Becker et al., 2003)의 편집서인 “여가 및 관광지리학”도 출간되었다. 이 밖에도 여가 및 관광 관련 전문 학술지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여가 및 관광지리학에 관한 다양한 문헌 자료집이 꾸준히 발간되고 있으며, 이 분야의 학술적 논의와 응용적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¹¹⁾

3. 결론 및 전망

이제까지 살펴 본 것처럼, 이 글은 독일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의 발달과정과 아울러 주요 연구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 여가 또는 관광과 연계된 인간 활동은 고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근대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지리학 분야에서 여가와 관광에 대한 학술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19세기 말 이후 본격화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 6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하나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독일에서 여가 및 관광지리학 연구의 첫 번째 발전단계는 대체로 192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친 시기로, 이른바 ‘관광(교통)지리학’이 지배하였다. 뒤이어 1970년대에 접어들어 문헌학파의 ‘여가행동’의 지리학이라는 사회지리학적 접근방법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독일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은 사회과학적 지향의 ‘여가지리학’이라는 새로운 발전단계로의 변모를 겪었다. 그리고 이후 세 번째 단계로서 이른바

‘관광지리학’의 발달과정을 거쳐, 마침내 여가지리학과의 통합을 통한 체계론적 성격을 강조하는 ‘여가 및 관광지리학’이 공고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분야를 지칭하는 용어의 변화 자체가 여가 및 관광지리학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위상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접근방법의 본질과 연구 초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독일 지리학의 여가와 관광에 대한 연구는 공간이나 지역(경관)에 천착하고, 총체적이고 다원적 관점을 견지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현 단계에서 독일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의 미래를 전망하기란 쉽지 않지만, 여가와 관광을 둘러싼 다음과 같은 일반 동향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여겨진다(Jurczek, 2003: 32). 첫째로 여가의 적극적인 향유와 활용, 그리고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평균 이상의 높은 여행 빈도가 지속될 것이며, 또한 보다 폭넓은 사회계층과 인구집단들이 이에 참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다양한 사회집단 가운데서도 젊고 교양 있는 중산층이 이러한 경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기업의 대형화와 집중화가 한층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며, 동시에 공급을 표준화하면서 시장 확대에 보다 전력투구할 것이 예상된다. 셋째로 여가와 관광의 미래에 있어서의 핵심 동향이 다양성의 추구하고 장거리 여행의 선호, 그리고 이와 동시에 향토성과 지역 정체성을 강조한 활동의 강조, 참여 및 체험활동 위주, 대규모화와 이벤트화의 추구 등(Kremb, 2004)으로 표현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독일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의 주요 연구주제와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이른바 ‘기능론적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한 여가 및 관광활동의 공간적 전개양상과 구조적 패턴이 앞으로 더 한층 더 분화적으로 탐색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

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여가 및 관광지리학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기존의 연구주제와 아울러 관광 동향에 관한 미래 전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몇몇 새로운 연구 분야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소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으나 베커(Becker, 2002)도 지적하였듯이, 관광과 지역발전, 지속 가능한 관광, 문화관광, 테마공원(예를 들어 디즈니랜드와 같은)이나 정보 및 교육센터 등 다용도 센터(Mixed-Use-Center)로 대표되는 각종 인공 시설물(kuenstliche Welten)을 대상으로 한 여가 및 체험관광, 제3세계 관광, 지리학적 여행 및 관광안내서의 편집과 출판, 요양 및 건강 목적의 관광 등이 주요 연구 분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독일에서 여가와 관광의 중요성이 현실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향과 주제는 필연적으로 대학에서 이에 대한 교육과 연구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몇몇 대학, 예를 들어 아헨(Aachen)공과대학, 아이히슈테트(Eichsstaett)가톨릭대학,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대학, 파더보른(Paderborn)대학, 트리어(Trier)대학 등을 중심으로 여가 및 관광 지리학 분야가 대학의 특화 내지 중점 연구 분야로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다. 이 밖에도 여가 및 관광 관련 특정 연구소, 이를 테면 뮌헨대학의 독일관광경제연구소(Deutsches Wirtschaftswissenschaftliches Institut fuer Fremdenverkehr), 베를린 전문대학의 관광연구소(Institut fuer Tourismus), 트리어대학의 유럽관광연구소(Europaeisches Tourismus Institut GmbH) 등의 설립과 운영에 지리학자들이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관광 관련 산업과 교육 및 연구 영역에서 지리학 졸업생들의 진로가 크게 확대되고,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지리학적 연구의 정책적 기여도도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주

- 1) 이 글에서는 여가와 관광의 개념을 하나의 동의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양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여가가 한층 포괄적이고 관광의 상위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여가와 관광은 점점 긴밀하게 연계되고, 무엇보다도 이를 구분하는 시간과 거리라는 통상적인 기준이 무용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 이해가 그릇된 것이라고만 할 수 없다.
- 2) 일반적으로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은 소득 증대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늘어난다. 물론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경제적 중요성과 노동자 권익을 배려하는 사회적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여가 및 관광활동의 의미도 높아져 왔다. 더욱이 여가와 관광은 도시적 생활양식에 대한 보상 혹은 보완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여가 및 관광지리학을 지칭하는 용어 또는 개념의 설정은 연구와 관련된 문제제기와 방법론을 명확히 정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학문 내외의 효율적인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더군다나 이는 여가 및 관광지리학 분야의 시대에 따른 연구관점과 인식론적 관심사의 변화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4) 이러한 발전단계의 구분 및 논의는 Wolf et al.(1986)과 Kreisel(2004), 그리고 무엇보다도 Jurczek(2003)를 많이 참조하였다.
- 5) 여가 및 관광지리학을 표현하는 독일어 고유의 용어이다. 영어로는 'foreign traffic geography'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타향의, 남의, 잘 모르는, 낯선'이라는 의미를 가진 '프렘트'(fremd)라는 형용사와 '교통, 통행, 왕래, 거래, 교제, 접촉'이라는 의미는 가진 '페어케어'(Verkehr)라는 명사가 결합된 복합어이다. 따라서 생소한 사람들이 낯선 풍물을 찾아 서로 만나고 감상하고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용어는 여행의 노정(Reiseweg)과 거리 극복을 강조한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
- 6) 독일의 슈데텐 산맥의 가장 높은 산지인 리젠제비게(Riesengebirge)의 관광활동에 관해 연구하였다.
- 7) 당시 설립된 대표적인 연구기관들로서는 베른대학 관광학과(Institut fuer Fremdenverkehr, Universitaet Bern - 현 여가 및 관광 연구학과), 생 갈렌 상업전문대학 관광 및 교통정책 세미나(Seminar fuer Fremdenverkehr und Verkehrspolitik, Handelshochschule St. Gallen - 현 생 갈렌 대학 공공서비스 및 관광학과), 빈 세계무역전문대

- 학 관광연구학과(Institut fuer Fremdenverkehrsforschung, Hochschule fuer Welthandel Wien - 현 빈 경제대학 관광 및 여가경제학과) 등이다.
- 8) 이 점과 관련하여 자몰레비츠(Samolewitz)는 첫째 특수 연구에 내포된 방법론적 제안과 객관적 연구결과의 개괄적인 정리, 둘째 인간의 관광활동과 지표공간 간의 모든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의 심화, 셋째 확인 가능한 법칙성의 탐색, 넷째 대공간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의 수행 등을 추구하였다(Wolf et al., 1986: 26).
- 9) 이러한 개념의 확대 내지 전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휴양의 정당성을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만 보고, 그 이상을 무위로 보거나 사치스럽게 행해지는 여가활동을 특권적 사회계층에게 전유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노동자들과 관련해서는 부도덕한 활동으로 평가한 과거의 시기가 도시화된 산업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휴양에 대한 정의를 지리학적 견지에 내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또한 의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차지하더라도, 휴양을 보다 일반적인 표현인 여가행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명료한 개념파악이라는 점에서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박영한·안영진, 1998).
- 10) 독일의 경우 주당 평균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관계가 1960년에는 43 : 26 시간이었으나, 2000년에는 38 : 39 시간으로 크게 변화였다.
- 11) 지리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문헌 자료 총서로서는 트리어대학 지리학부에서 발간되는 “Materialien zur Fremdenverkehrsgeographie”와 “Trierer Tourismus Bibliographien”, 그리고 아이히슈테트가톨릭대학 지리학부에서 발간되는 “Eichstaetter Tourismuswissenschaftlichen Beitrage”와 “Eichstaetter Materialien zur Tourismusforschung” 등이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로서는 “Literaturdokumentation Tourismus und Freizeit”이 있다.
- 박영한·안영진(옮김), 1998, 사회지리학 - 사회공간이론과 지역계획의 기초, 서울: 법문사(=Maier, J. et. al., 1977, *Sozialgeographie*, Braunschweig: Westermann).
- 안영진(옮김), 2003, 사회공간론 - 사회지리학 이론 발달사, 서울: 한울(=Werlen, B., 2000, *Sozialgeographie - Eine Einfuehrung*, Stuttgart: Haupt).
- Becker, C. und Job, H.(Hrsg.), 2000, *Nationalatlas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10 - Freizeit und Tourismus*, Heidelberg und Berlin: Spektrum.
- Becker, C., 2000, “Freizeit und Tourismus in Deutschland - Eine Einfuehrung,” in Becker, C. et al.(Hrsg.), 2000, *Nationalatlas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10 - Freizeit und Tourismus*, Heidelberg und Berlin: Spektrum, 12-21.
- Becker, C., 2002, “Die Geographie des Tourismus - Stand und Perspektiven,” *Geographie und Schule* 24(2), S.4-10.
- Becker, C., Hopfinger, H. und Steinecke, A.(Hrsg.), 2003, *Geographie der Freizeit und des Tourismus - Bilanz und Ausblick*, Muenchen und Wien: Oldenbourg.
- Becker, C., Job, H. und Witzel, A.(Hrsg.), 1996, *Tourismus und nachhaltige Entwicklung - Grundlagen und praktische Ansaetze fuer den mitteleuropaeischen Raum*,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 Benthien, B. und Eckart, K., 2001, “Tourismus und Fremdenverkehrsraume,” in Eckart, K.(Hrsg.), *Deutschland*, Gotha und Stuttgart: Klett-Perthes, S.236-253.
- Benthien, B., 1997, *Geographie der Erholung und des Tourismus*, Gotha und Stuttgart: Klett-Perthes.
- Christaller, 1955, “Beitraege zu einer Geographie des Fremdenverkehrs,” *Erdkunde* 4(1), S.1-19.
- Hahn, H. 1958, *Die Erholungsgebiete der Bundesrepublik (= Bonner Geographische Abhandlungen 22)*, Darmstadt.

참 고 문 헌

- 김상빈, 2005a, “통독 이후 구동독지역 관광의 변화,” 지리학연구 39(2), pp.233-247.
- 김상빈, 2005b, “도시 관광을 통한 도시재생 전략 - 동독 도시를 사례로,” 지리학연구 39(3), pp.371-385.

- Heinritz, G und Popp, H., 1978, "Reichweiten von Freizeiteinrichtungen und aktionsraeumliche Aspekte des Besucherverhaltens," *Mitteilungen der Geographischen Gesellschaft Muenchen* 63, S.79-115.
- Hofmeister, B. und Steinecke, A.(Hrsg.), 1984, *Geographie des Freizeit- und Fremdenverkehrs*,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 Job, H., Paesler, R. und Vogt, L., 2005, "Geographie des Tourismus," in Schenk, W. und Schliephake, K.(Hrsg.), *Allgemeine Anthropogeographie*, Gotha: Klett-Perthes Verlag, S.581-628.
- Jurczek, P., 1981, "Freizeit, Fremdenverkehr und Naherholung," *Praxis Geographie* 11(2), S.45-49.
- Jurczek, P., 2002a, "Geographie der Freizeit," in Brunotte, E. et. al.(Hrsg.), *Lexikon der Geographie* Bd.2, Hedelberg und Berlin: Spektrum, S.16-17.
- Jurczek, P., 2002b, "Geographie der Freizeit und des Tourismus," in Brunotte, E. et. al.(Hrsg.), *Lexikon der Geographie Bd.2*, Hedelberg und Berlin: Spektrum, S.17-18.
- Jurczek, P., 2002c, "Geographie des Tourismus," in Brunotte, E. et. al.(Hrsg.), *Lexikon der Geographie Bd.2*, Hedelberg und Berlin: Spektrum, S.20-21.
- Jurczek, P., 2003, "Geographie der Freizeit und des Tourismus - Disziplingeschichte und Perspektiven," in Becker, C. et. al.(Hrsg.), *Geographie der Freizeit und des Tourismus-Bilanz und Ausblick*, Muenchen und Wien: Oldenbourg, S.25-34.
- Kaminske, V., 1981, "Zur systematischen Stellung einer Geographie des *Freizeitverhaltens*," *Geographische Zeitschrift* 69, S.217-223.
- Knirsch, R., 1976, "Fremdenverkehrsgeographie oder Geographie des Freizeitverhaltens, oder?" *Zeitschrift fuer Wirtschaftsgeographie* 20, S.248-249.
- Kreisel, W., 2004, "Geography of Leisure and Tourism Research in the German-speaking World - Three Pillars to Progress," *Tourism Geographies* 6(2), S.163-185.
- Kremb, K., 2004, "Tourismus und Freizeitverhalten - Zur Geographie eines Massenphaenomens," *Praxis Geographie* 34(12), S.4-9.
- Kulinat, K. und Steinecke, A., 1984, *Geographie des Freizeit- und Fremdenverkehrs*,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 Monheim, R., 1979, "Die Stadt als Fremdenverkehrs- und Freizeitraum," in *Freizeitverhalten in verschiedenen Raumkategorien* (= Materialien zur Fremdenverkehrsgeographie 3), Trier, S.661-672.
- Newig, J., 1975, "Vorschlaege zur Terminologie der Fremdenverkehrsgeographie," *Geographisches Taschenbuch* 1975/1976, Wiesbaden, S.260-271.
- Oestreich, H., 1977, "Anmerkungen zu einer 'Geographie des Freizeitverhaltens'," *Geographische Rundschau* 25, S.80-83.
- Poser, H., 1939, *Geographische Studien ueber den Fremdenverkehr im Riesenberge - Ein Beitrag zur geographischen Betrachtung des Fremdenverkehrs* (=Abhandlungen der Gesellschaft der Wissenschaften zu Goettingen, Mathematisch-Physikalische Klasse, Dritte Folge 20), Goettingen.
- Prahl, H.-W., 2002, *Soziologie der Freizeit*, Paderborn: Ferdinand Schoeningh.
- Ruppert, K. and Maier, J., 1970, *Zur Geographie des Freizeitverhaltens-Beitraege zur Fremdenverkehrsgeographie* (=Muenchnder Studien zur Sozial- und Wirtschaftsgeographie 6), Kallmuenz.
- Ruppert, K., 1975, "Zur Allgemeinen Geographie des Freizeitverhaltens," *Geographische Rundschau* 27(1), S.1-6.
- Samolewitz, R., 1960, "Hinweis auf die Behandlung des Fremdenverkehrs in der wissenschaftlichen, besondere der geographischen Literatur," *Zeitschrift fuer Wirtschaftsgeographie* 5, S.144-148.

- Steinecke, A.(Hrsg.), 2000, *Erlebnis- und Konsumwelten*, Muenchen und Wien.
- Storbeck, D.(Hrsg.), 1988, *Moderner Tourismus* (= Materialien zur Fremdenverkehrsgeographie 17), Trier.
- Uthoff, D., 1988, "Tourismus und Raum - Entwicklung, Stand und Aufgaben geographischer Tourismusforschung," *Geographie und Schule* 53, S.2-12.
- Vorlaufer, K., 1996, *Tourismus in Entwicklungslaendern - Moeglichkeiten und Grenzen einer nachhaltigen Entwicklung durch Fremdenverkehr*,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 Wolf, K, und Jurczek, P., 1986, *Geographie der Freizeit und des Tourismus*, Stuttgart: Ulmer.

교신: 안영진,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사회과
학대학 지리학과, Tel: 062-530-2686, Fax: 062-
530-2689, E-mail:Yjahn@chonnam.ac.kr

Correspondence: YoungJin Ahn,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Buk-gu, Gwangju 500-757, Korea
Tel: 062-530-2686, Fax: 062-530-2689,
E-mail:Yjahn@chonnam.ac.kr

최초투고일 2006년 2월 15일

최종접수일 2006년 3월 16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9, No.1, 2006(123-137)

Entwicklungslinie und Forschungsstand der deutschen Geographie der Freizeit und des Tourismus

Young-Jin Ahn*

Zusammenfassung : Die Geographie der Freizeit und des Tourismus in Deutschland ist eine relative junge Teildisziplin innerhalb der Geographie des Menschen, wenn auch bereits 1905 der Begriff der 'Fremdenverkehrsgeographie' eingefuehrt wurde. Angesichts der Forschungsrichtung hat diese Teildisziplin in dem letzten Jahrhundert mehrere Phasen durchlaufen. In der ersten Phase ihrer Entwicklung, die etwa von den 1920er-bis in die 1960er-Jahre dauerte, herrschte die 'Fremdenverkehrsgeographie' vor. Ab Anfang der 1970er-Jahre hat sich in der zweiten Phase die 'Geographie des Freizeitverhaltens' (Muenchner Schule der Sozialgeographie) durchgesetzt. Darauf folgte die 'Tourismusgeographie' und endlich in der vierten Phase etablierte sich die 'Geographie der Freizeit und des Tourismus'. Die Entwicklung der deutschen Geographie der Freizeit und des Tourismus in den letzten ca. 100 Jahren praesentiert nicht nur einen nachhaltigen Wandel und die Erweiterung in dem inhaltlichen Schwerpunkt der Forschung, sondern stellt auch eine zunehmende Bedeutungsaufschwung der Freizeit und des Tourismus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dar.

Schluesselwoerter : Deutschland, Fremdenverkehrsgeographie, Geographie der Freizeit und des Tourismus, Entwicklung, Forschungsperspektive.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